

## 중국, 2007년 상반기 과일시장 동향

리 금\*

2007년 상반기, 중국 일부 지역에 가뭄, 폭우·폭설, 홍수 등 피해가 발생하여 과수의 생산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의 평균 기온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예년보다 다소 높아 과일생산에 유리하여 상반기 과일 생산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좋은 상황이다. 평균 기온이 높아진 관계로 남방지역의 열대과일 생산량과 출하량은 모두 증가하였다. 복숭아류, 과채류, 사과류와 포도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고, 감귤류, 배류와 열대과일류 가격은 감소하였다. 과일 수출입의 무역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

### 1. 과일의 생산량과 가격 동향

1월에 중국 대부분지역의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고 강우량이 적었다. 남부 대부분 지역에는 저온, 눈비, 일조량이 적은 날씨로 과일 생육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 해남성 남부의 가뭄피해는 조생 여지의 열매 성장에 불리하였지만 중생 여지의 가지치기 제재와 화분분열에는 유리하였다. 2월의 기상조건은 과수의 월동에 적합하였다. 사천성의 과수 생육기는 예년보다 1~2주 앞당겨졌다. 화남지역 동부의 맑은 날씨는 비과 열매의 생육과 과수의 육묘정식에 유리하였다. 하지만 다소 높은 기온은 광서성의 여지, 용안 등 과수의 가지치기 제재에 악영향을 주었다.

---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lijin95@smu.ac.kr](mailto:lijin95@smu.ac.kr) 02-880-4898

3월의 기후조건은 전반적인 과일 성장에 유리하였다. 하지만 화남지역 동부의 다소 높은 기온은 용안의 “가지치기”에 불리하였고, 광서의 강우, 일조량이 적은 날씨는 여지, 망고 등 과수의 개화와 수분에 불리하였으며, 해남 남부지역의 강우량이 적은 날씨는 과수의 성장에 아주 불리하였다. 호남성, 안회성, 광서자치구 등 지역에서는 폭우, 홍수 피해를 입어 과수의 운송에 불리하였다.

4월에 광동성과 광서지역은 냉해로 여지, 용안 등 과수의 개화, 수분 및 착과 등에 불리하였다. 기온이 적합하고 강우량이 적고, 일조량이 충족한 5월 날씨는 용안의 개화수분과 여지, 감귤 등 과수의 열매 생육에 유리하였다. 6월에 일부지역은 강우량, 강우일수가 많아 여지·용안의 열매의 성장과 수박·참외의 수확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

전국농산물도매시장정보망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 중국의 과일도매시장가격은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복숭아류, 과채류, 사과류와 포도류 과일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고, 감귤류, 배류와 열대과일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다.

표 1 2007년 상반기 과일도매가격(전국평균가격)

품목	도매가격(위안/kg)	전반기 대비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감귤(광동)	2.053	-18.5	-52.7
밀감	3.399	5.1	-4.7
오렌지	4.988	-40.8	-2.6
야리	1.914	-5.1	-21.2
국광사과	2.158	3.6	-5.5
부시사과	3.288	-15.8	-21.2
바나나	3.201	8.6	-9.2
파인애플	2.804	-17.6	2.3
용안	9.572	3.0	1.2
망고	10.939	2.5	-16.9
여지	11.077	22.1	31.4
배	5.709	2.4	0.1
복숭아	5.697	132.0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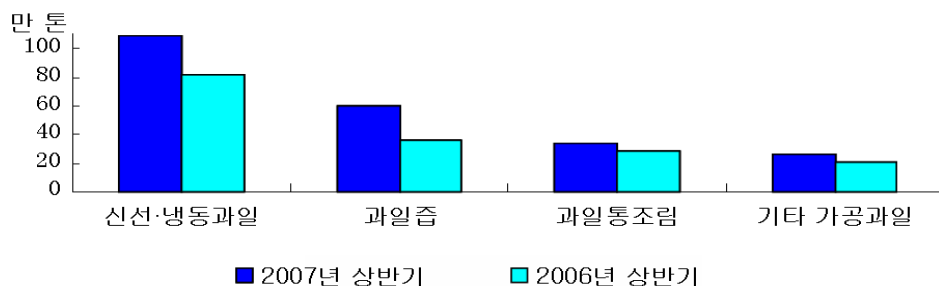
## 2. 과일의 수출입 동향

중국 상반기 과일수출입총액은 21.9억 달러다. 그중 수출(신선·냉동과일, 과일즙, 과일 통조림, 기타 가공과일 등을 포함. 이하 동일)액은 1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7%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4.9억달러로 21.1% 증가하였다. 무역흑자는 1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하였다.

과일 분류별 수출에서 신선·냉동과일과 가공제품이 반반을 차지한다. 주요 품종은 여전히 신선사과, 과일즙과 감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선·냉동과일은 과일 수출총량의 47.7%를 차지하는 109.2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하였다. 기타 가공과일 수출은 과일 수출총량의 11.6%를 차지하는 26.5만 톤으로 31.1% 증가하였고, 과일통조림 수출은 33.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수준으로 과일 수출총량의 14.6%를 차지하였다. 과일즙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26.2%를 차지하는 60.1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1% 증가하였다.

수출지역으로 볼 때, 산둥성, 섬서성, 절강성, 복건성, 광둥성은 중국의 주요 과일 수출지역이다. 2007년 상반기 상기 5개 성의 과일 수출액은 각각 5.6억 달러, 2.7억 달러, 1.4억 달러, 1.2억 달러와 1.0억 달러였다. 과일 수입에서 수입액 기준으로 상위 5개 성시는 광둥성, 상해시, 북경시, 료녕성과 산둥성이다.

그림 1 2007년 상반기 분류별 수출량



수출 대상국으로 볼 때, 미국, 일본,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은 중국 과일수출의 주요 무역파트너이다. 상기 5개 국가별 과일수출액은 각각 상반기 과일 수출총액의 22.9%, 14.4%, 10.1%, 6.7%와 6.2%를 차지한다. 상반기 대미 수출량은 39.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1% 증가,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80.4% 증가하였다. 대일 수출은 22.1만 톤, 2.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2%, 22.4% 증가하였다. 대러시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9.2% 증가한 1.7억 달러였다. 네덜란드, 독일에 대한 수출액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70%이상 증가하여 1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그림 2 2007년 상반기 성별 수출과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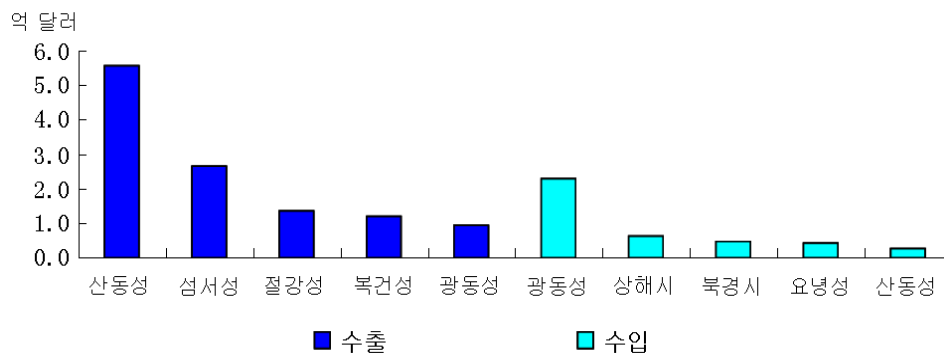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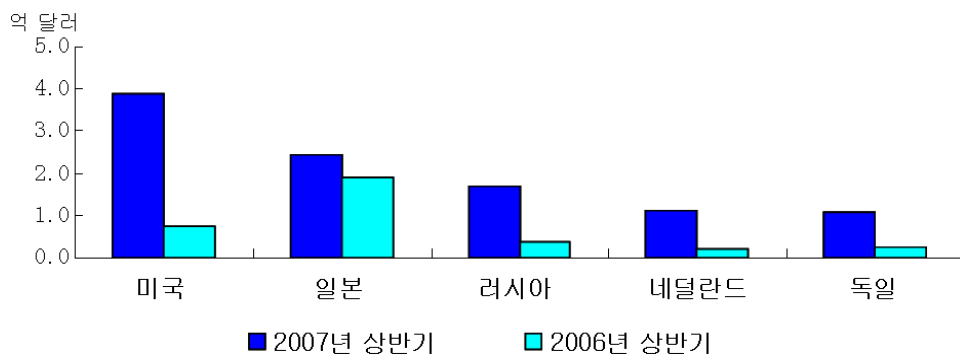


그림 3 2007년 상반기 수출국별 수출액



2007년 상반기, 중국은 주로 감귤즙(3.5만 톤, 6,084만 달러), 바나나(16.3만 톤, 5,275만 달러), 키위(5.8만 톤, 4,100만 달러), 포도(3.1만 톤, 4,074만 달러) 등을 수입하였다. 수입선별로 태국, 칠레로부터의 수입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반면 필리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실적은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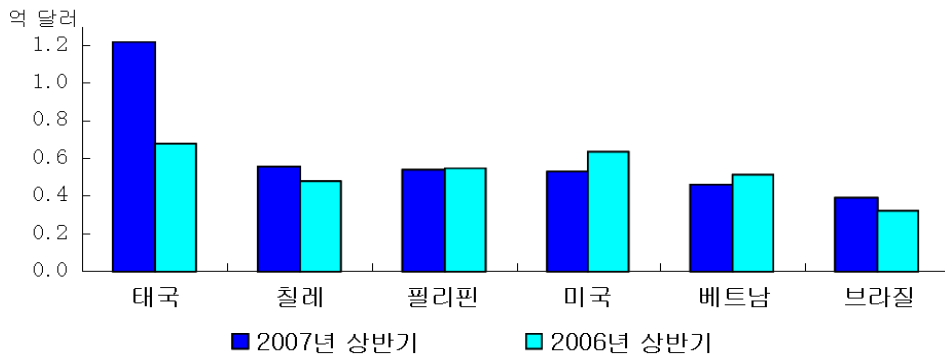
표 2 2007년 상반기 수입국별 수입 상황

단위: 만 톤, 억 달러

	태국	칠레	필리핀	미국
수입량	13.7(21.0%)	4.7(21.2%)	15.8(-8.6%)	5.1(-32.8%)
수입액	1.2(44.1%)	0.6(13.5%)	0.5(-2.3%)	0.5(-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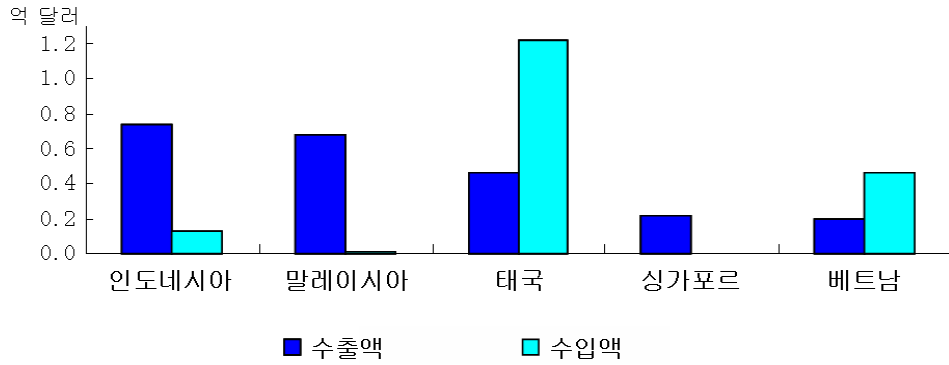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그림 4 2007년 상반기 수입국별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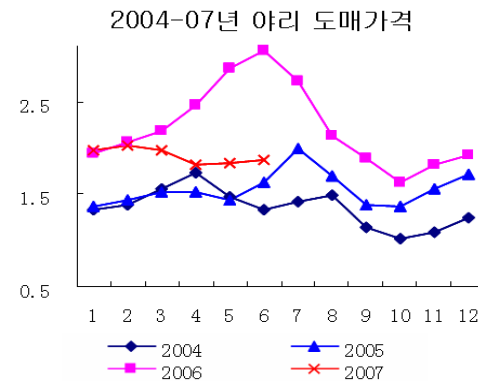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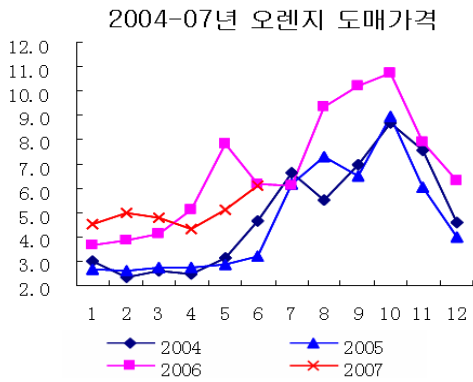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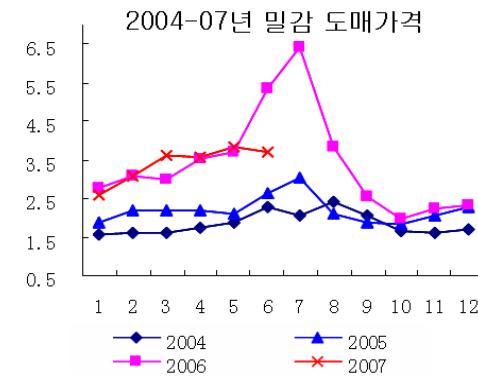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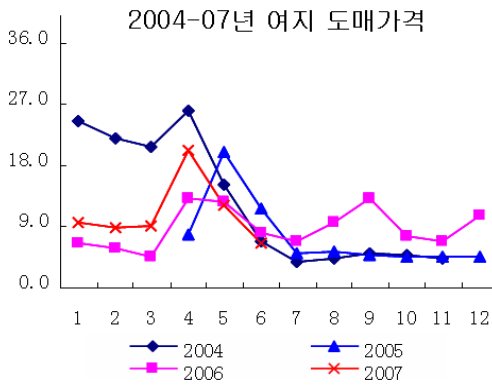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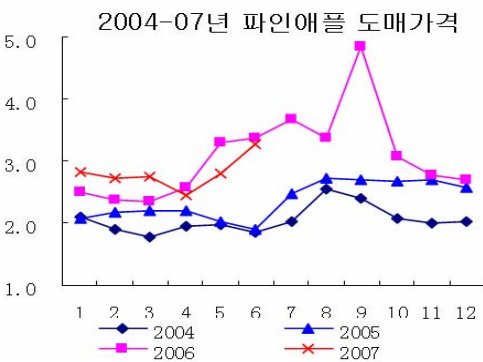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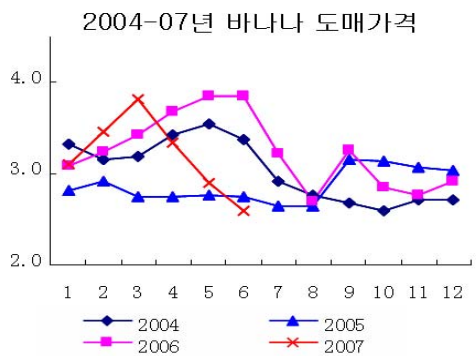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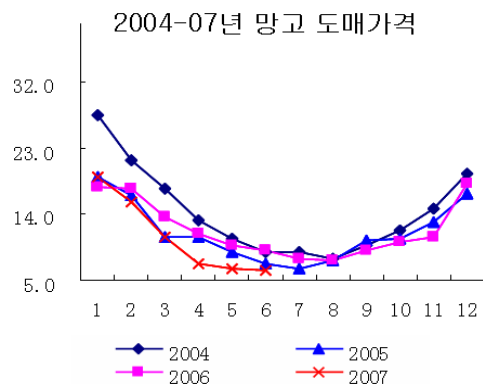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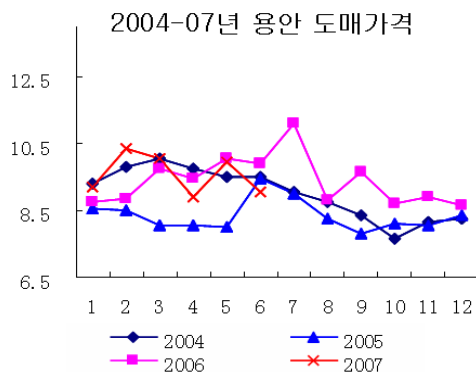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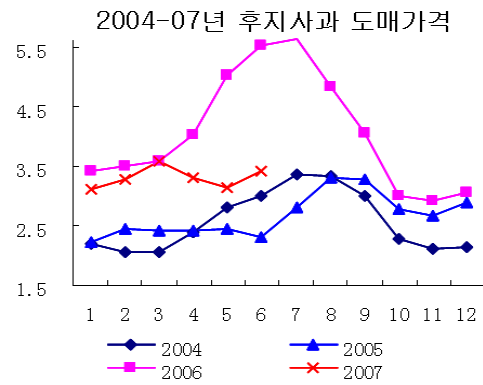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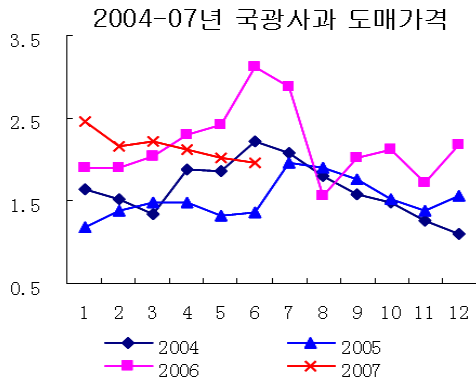
동남아국가와의 과일수출입무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상반기 동남아국가에는 52.5만 톤(과일 수출총량의 22.9%), 2.6억 달러(과일 수출총액의 15.2%)에 달하는 과일을 수출하였는데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2%, 24.0% 증가한 수준이다. 동시에 동남아국가로부터의 과일수입도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에 동남아로부터 53.1만 톤(과일 수입총량의 74%), 2.4억 달러(과일 수입총액의 48.1%)에 달하는 과일을 수입하였는데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9%, 17.6%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5 2007년 상반기 동남아국가별 수출입액



3. 2004~07년 품목별 도매가격 추이(단위: 위안/kg)





참고자료

[http://www.agri.gov.cn/xxfb/t20070803\\_864788.htm](http://www.agri.gov.cn/xxfb/t20070803_864788.htm)(2007年上半年水果市場形勢分析) 완역